산문 밖의 禪

김양수 화백

“禪畵, 맑은 마음으로 그린 맑은 그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김양수 화백은…동국대학교와 중국 중앙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에서 제자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화가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40회의 국내외 개인전을 열었고, 틈틈이 글쓰기에 열중하여 선시화집 〈산 아래 집 짓고 새벽별을 기다린다〉 등을 출간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달마를 품고 산 지 오래다. 그리움의 존재로 마음속에 그득했다. 그동안 달마를 향해 온통 열려 있었고 붓끝의 열렬한 화두였다. 그 화두로 잠들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는데, 이제 비로소 화폭 위에서 달마와 마주한다.”

화가의 화두는 달마. 화두를 품은 붓은 기다린다. ‘한 순간’이 다가오기를. 마침내 화가는 붓 끝에 선다. 품었지만 품지 못했던 화두의 면목을 본다. 붓 끝에선 달마가 선명해지고 있다. 달마는 눈을 부릅뜨고 경책하듯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애민중생의 눈빛이 다정다감하다. 벽을 보고 앉은 달마가 아니다. ‘숨은 그림’처럼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달마다.

오랫동안 자연을 소재로 선(禪)적인 그림을 그려왔던 김양수 화백이 이번에는 달마를 그렸다. 그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서 ‘백팔 달마전’을 열었다. 김양수가 달마를? 궁금하다. 김양수 화백을 갤러리에서 만났다.

달마의 위로

이번 전시는 황청원 시인과 함께했다. 시인은 어느 날, 달마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자신 앞에 나타나는 상상을 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달마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 생각은 시가 됐다. 그리고 그 시를 김양수 화백이 다시 그림으로 옮겼다. 김 화백은 약 1년 동안 300여 점의 달마를 그렸고, 그 중에서 108점을 골라 전시회를 열었다. 시화집 〈달마가 웃더라 나를 보고〉도 출간했다.

“저는 주로 자연을 그려왔죠. 개구리도 많이 그렸는데, 생명에 무게가 있다면 저와 개구리의 무게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구리도 길가의 꽃들도 모두 각자가 법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그 법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지구가 그 반증이죠. 그래서 이 무진법문들을 선(禪)에 연결시켜 풀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달마를 그렸어요. 어느 날, 그려두었던 달마를 몇 점 들고 황청원 시인을 찾아갔어요. 보더니 짤막한 시를 붙이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됐어요.”

김 화백은 그동안 개구리, 꽃, 산, 구름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수묵화로 선적인 그림세계를 이어왔다. 특히 김 화백의 그림에는 여백이 많다. 그의 그림에는 그림이 많지 않다. 그래서 대중이 들어갈 자리가 많다. 그림의 크기도 대작보다는 작은 그림이 많다. 하지만 그림은 모두 ‘큰 그림’이다.

김 화백은 어느 날, ‘달마’라는 화두를 들었다. 그리고 생각은 멀리 ‘십우도’까지 다녀왔다. 마음을 찾아간다는 것. 김 화백은 달마 역시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이 시대의 대중에게 따뜻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 달마’가 아닌 ‘가까운 달마’여야 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 존재하는 친구 같고, 선생님 같고, 마을 할아버지 같기도 한, 그런 가까운 달마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 화백의 달마는 대중처럼 웃고, 때론 피곤한 얼굴을 하고,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래서 달마도 앞에 선 대중은 달마처럼 웃고 울다가 점점 고요해진다. ‘같이’한다는 것에서 위로가 시작되는 것일까. 대중은 그렇게 ‘불멍’을 하듯 ‘달(마)멍’을 하게 된다.

“이 시대의 대중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달마를 그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해서요. 잠시라도. 그러니까 달마도 웃을 줄 알아야지요. 달마가 ‘올드한’ 소재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달마라는 소재는 올드하고 아니고 할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십우도가 그렇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듯 달마 역시도 시대와 상관없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갤러리에 걸린 108점의 달마를 본다. 개구리 한 마리가 달마에게 꽃 한 송이를 올리고 있다. 수선화에 물을 주고 있는 달마. 동백꽃한테 말을 걸고 있는 달마. 잠시 고요해진다. 김양수의 달마엔 그렇게 ‘고요’가 있다. 김 화백이 그림 속에 ‘고요’를 그린 것은 그림 앞에 선 대중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많은 ‘흔들림’으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심연의 마음을 ‘고요’가 주는 투명함을 통해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우물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으로 생긴 물결 때문에 물속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물결이 고요해지면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요해지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거죠.”

김 화백의 그림은 달마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때를

고향 진도서 난초화 보고 화가 꿈꿔
자연풍경 소재로 한 선화 세계 구축
여백 · 고요 미학으로 ‘위로’하는 그림
황청원 시인과 컬래보 ‘백팔 달마전’

기다리던 생각의 모습이 꽃이 피듯 화백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김 화백은 별도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의도하고 계산할 수 없이 순간에 ‘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화라는 것은 선의 세계를 경험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손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느끼는 마음 작용이 그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손은 도구일 뿐이지요. 300점이 넘는 달마를 그렸는데, 모두 그렇게 그렸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그렸던 그림을 똑같이 다시 그리라고 하면 못 해요. 그 당시의 순간이 그린 것이기 때문이죠.”

진도, 난초, 수묵, 동국대

김양수는 언제부터 ‘화가’를 꿈꿨을까. 그리고 어떻게 꿈을 이뤘을까. 김양수의 꿈은 전라남도 진도에서 시작된다. 그는 진도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따라 읍내에 갔던 김양수는 한 서예가를 보게 된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림’을 본다. 그 그림이 김양수의 꿈이 된다. 김양수가 처음 본 ‘그림’은 수묵의 난초다.

“서예가 선생님이 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꿈.”

김 화백 그림의 뿌리는 진도다. 그리고 그 그림은 먹물의 그림이다. 진도는 서예가와 화가들이 많았다. 초의, 추사, 소치, 그리고 미산, 남농 등으로 이어진 화려한 남종문인화의 화맥. 진도는 그런 곳이다. 먹의 그림이 ‘그림’인 곳.

남농의 그림을 좋아했던 김양수에게도 ‘그림’은 역시 먹으로 그린 것이었다. 다른 그림은 생각에 없었다.

그렇게 꿈을 품은 김양수는 진도에서 진도의 그림을 보고 그리며 자랐다. 다음은 대학교 진학. 김양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동국대학교. 서울대를 비롯해 여러 미술대가 있었지만 김양수의 생각엔 동국대 밖에 없었다.

“그냥 동국대에 가고 싶었어요. 다른 대학은 전혀 마음이 가질 않았어요.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안에 불연이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당시의 그런 저의 마음을 설명하자면, ‘인연법’이라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고 싶었으니까요.”

김 화백은 동국대가 좋았다. 정각원(법당)이 있는 것도 좋았다. 김 화백은 등교하면 정각원부터 들렀다. 그리고 매일 108배를 했다. 하고 싶어서, 그냥 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정각원에 갔다. 부처님 앞에 앉아 강의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어떤 그림을 그릴까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렇게 김 화백에게 불교는 이유가 없는 ‘이유’였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었다. 동국대를 좋아했던 이유, 정각원부터 달려갔던 이유, 바랄 것 없이 그냥 했던 108배, 그 이유 없는 이유들이 김양수의 그림 속에 있는 것들이다.

이루지 못한 미래, 다시 회향

김 화백은 나이 육십을 앞둔 2018년 어느 날, 고향 진도로 돌아간다. 이유는 ‘회향’이다. 자연과 가까울 수 있다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였지만 그 보다는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 어려

동국대 시절 매일 법당서 108배 해
그림 그리기 전 자신부터 들여다봐
어려운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 낙향
화실 전소로 작품 모두 잃은 시련도

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이유였고, 그것이 김 화백의 ‘회향’이었다.

김 화백은 산기슭에 작은 화실 하나를 지었다. 이름은 적염산방. 김 화백의 마지막 계획은 ‘선 미술관’ 건립이다. 적염산방은 미리 보는 작은 ‘선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적염산방은 김양수만을 위한, 김양수만의 공간이 아니다. 외롭고, 아프고, 고단한 모든 사람의 공간이다.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이 있고, 시가 있고, 숲이 있는 공감의 공간이다. 공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향을 피우고, 명상하고 그림을 그리는 곳이다.

김 화백은 예술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말한다. 그림이 단지 감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돌보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맑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

“내가 맑지 못하면 내가 그리는 그림도 맑을 수 없어요. 그럼 보는 사람도 맑을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이 흔들리면 붓도 흔들리죠. 그림은 기도예요. 붓끝에 마음을 얹어서 누군가의 삶에 가 닿기를 바라는….”

김 화백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자신부터 들여다본다. 명상, 독경, 맑은 차 한 잔. 김 화백은 잔잔한 우물처럼 마음속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그 보이는 것을 붓끝에 담는다.

2023년 여름, 그 좋은 계절에 김 화백은 큰 시련을 겪었다. 김 화백은 화실 적염산방을 화마로 인해 통째로 잃었다. 목숨과도 같은 작품들은 순식간에 한 줌의 재가 됐다. 어려운 시간이 흐르고 김 화백은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림은 더 단단해졌다. 여백은 여백대로, 선은 선대로, 먹은 먹대로, 고요했다. 많이 흔들렸지만 그의 그림은 다시 고요하고 평온했다.

벽에 걸린 달마를 본다. 달마가 거울 앞에 앉았다. “똑 똑 똑, 손꼽아 기다리지 않아도 / 어느 날 그대 마음 거울에 / 붉은 노을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각자의 붉은 노을을 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해진 것’들이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깊은 곳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답은 어렵고 의심은 확실해진다. 김양수 화백은 여귀산 기슭에 이루지 못한 미래를 다시 지었다. 이견토굴. 김양수의 달마가 말한다. 언제가 붉은 노을이 찾아올 것이라고.



김양수 作 무애자재.



김양수 作 차안과 피안.